

## 지역 공연장 공익 활용 모범사례 | 민간 상생 프로젝트 '효사랑콘서트', 전주 한해랑아트홀서

전주 지역에서 공연장과 기업, 소상공인, 예술인이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 문화행사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민간 상생 프로젝트 '효사랑콘서트'가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주 한해랑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효'와 '이웃사랑'을 주제로 한 민간 주도형 문화공연으로, 지역의 여러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공연장 공간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의 후원, 예술인의 재능기부가 함께 어우러지며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와 나눔, 상생이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줬다.

효사랑콘서트는 광고와 마케팅에 사용되던 비용 일부를 지역 문화행사로 전환해 다시 지역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공연장이 비어 있는 시간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 지역 예술 역량이 결합해 공익적 문화행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구조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 전체 기획과 광고 홍보는 이지원플랫폼이 재능기부로 맡아 진행했다. 이지원플랫폼은 소상공인 민간지원업체로, 콘텐츠 제작과 광고업을 기반으로 전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홍보 역량과 마케팅 실무 지원해 왔으며, 이번 효사랑콘서트 역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 프로젝트의 실천 사례로 의미를 남겼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전주 지역 동네수퍼마켓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으로, 지역 유통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협동조합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써 왔으며, 주민 생활 가까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



르신 먹거리 선물세트 200개를 후원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웰인뉴는 건강식품과 지역 특화 상품을 연구·제조·유통하는 업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 상품 개발과 유통을 통해 건강한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 활동에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17가지 약재로 만든 모주 200병을 지원해 어르신 건강을 위한 후원에 참여했다.

한해랑아트홀은 전주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운영해 온 공연장으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연예술의 일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해 왔으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 공간으로 자리해 있다. 이번 효사랑콘서트에서는 공연장을 제 공하며, 지역 공연장의 유휴공간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었다.

한백예술단은 지역 공연예술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예술단체로, 시민과 가까운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지

역 문화예술의 활력을 더해 왔다. 예술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사회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익 무대에도 참여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재능기부를 통해 무대에 올라 효와 이웃사랑의 의미를 한층 깊게 전달했다.

금암면옥 역시 후원에 참여했다. 금암면옥은 전주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외식업체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 해 온 친숙한 음식문화 공간이다.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해 온 업체가 공익 문화행사에 힘을 보탤다는 점에서 이번 참여는 지역 상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여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찾았으며, 어르신들은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며 큰 반응을 보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행사 후에는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꼭 다시 불러달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사 관계자는 "공연장이 비어 있는 시간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연결하고 싶었다"며 "이번 공연이 어르신들께는 즐거움과 위로를 드리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곳곳의 문화공간이 보다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효사랑콘서트는 지역 안에서 발생한 자원과 역량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 민간 주도형 문화행사로, 공연장과 기업, 소상공인, 예술인이 함께 만든 지역 상생의 의미 있는 사례로 남게 됐다.

/김재훈기자



### 여경협 전북, 송천중고서 배식 봉사활동

영농철을 맞아 김제 곳곳에서 농촌일손돕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김제시 회계과 직원들은 지난 14일 본격적인 금산면 소재 수곡농장을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계과 직원들은 농가를 방문해 수곡 성장에 필수적인 △수곡 분갈이 작업, △농장 주변 및 하우스 내 제초작업에 매진했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분갈이 작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출하를 앞둔 수곡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보탤었다.

김제시 건설과도 15일 금구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벌였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건설과 직원들이 참여해 고구마 심기, 잡초제거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 속에서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도 일손 부족으로 고삼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신평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황산동 소재의 복숭아 및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과실 적과(열매 숙기), 순치기, 농장 환경 정비 등을 진행하며 농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직원들은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작업 도구와 도시락 등을 직접 준비했으며 단순히 일손을 보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력난으로 시름하는 농촌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주민과 깊이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제=곽태 기자

## 군산의 한 집배원, 화마 속 어르신 구하다

### 전북우정청장, 군산대야우체국 집배원 격려

### 배달 중 화재 발견 후 신속 대응... 초기 진화

군산에서 우편물 배달 중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어르신들 구조한 집배원의 선행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본준)은 군산대야우체국 소속 장지훈 집배원을 찾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15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장지훈 집배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 20분경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르신이 있었으며, 장 집배원은 즉시 해당 어르신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이후 그는 119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한 것이다.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지난 12일 군산대야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장지훈 집배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했다. 구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사례가 우정사업본부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교육과 현장 직원들의 사명감이 결합된 결과라며, 일선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전국 곳곳을 연결하는 우체국과 집배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재난 현장 초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인명 피해를 줄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 부안농업기술센터, 농업 유용미생물 활용 등 교육

부안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영)는 지난 14일 관내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 유용미생물 활용 및 토양 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친환경 농축산 경영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미생물을 활용해 최근 고물가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종 농가의 토양 관리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효과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성진 기자



### 군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위한 장학금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메타과학수학학원(원장 유영태)과 최상학원(원장 이민구)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각 학원에서 60만 원씩 총 120만원을 후원해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5명에게 전달되었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메타과학수학학원 유영태 원장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고, 최상학원 이민구 원장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국립군산대 교수·학생, 학술대회서 동반 수상

###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이인선 교수 '우수 여성과학자상' 등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최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식생활문화학회 제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식품영양학과 조리과학연구실(지도교수 이인선) 소속의 하혜민 박사과정생, 장수정 석사과정생, 이지민 학부생이 건조대과 분말의 첨가가 연두부의 이화화 특성 및 향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K-푸드 교육의 핵심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한식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전승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학술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 남원죽항동, 거동 불편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낙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자는 1일 1가구 소를



행정을 통한 실태 확인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보행보조기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길을 때마다 넘어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외출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덕과면 지사협, 홀몸 어르신 생신 축하



남원시 덕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신을 맞은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신 케이크와 생필품을 전달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면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행복 나누는 생신 케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홀로 생일을 보내는 독거 어르신 20명에게 정서적 위로와 이웃의 온정도 전하며 인부확인도 병행한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생신케이크와 휴지, 세제, 두유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하며 정서적 지지와 복지 상담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돌봄 지원에 나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 백운면, 일손 부족 농가에 '희망의 손길'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대외 여건 악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지난 15일 일손 부족 농가에 '희망의 손길'을 내걸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백운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진안군청 산림과, 상하수도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운면 평장리의 한 농가를 찾아 9,900㎡(약 3,000평) 규모의 밭에서 △수확 비닐 씌우기와 △고추 지주대 세우기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 자재비 부담과 경기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등 가중되는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과 건강 문제로 작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당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진안=우태만기자



### 무진장 농어촌공,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안희)는 지난 15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로 서비스'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직업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백종하 강사는 밀폐공간 안전직업절차 및 직업전 작업자가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복합가스 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사용방법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질식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감해 긴급히 환자를 구조하는 밀폐공간 긴급구조 도상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무진장지사는 "직업들의 밀폐공간 안전업절차 및 주요 질식재해 사례 등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직업전 안전직업 허가 승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